

# 김종훈 정무부지사, 농공단지 현장방문

임실 오수·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파악·도려... "안전사고 예방 및 기업수요 적극 대응" 당부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임실과 진안 농공단지를 방문해 신규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을 살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임실 오수2,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부지사는 단지별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반려동물 특화단지인 '임실 오수2 농공단지'를 찾아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한 김 부지사는 "군내 기초성원 4개 단지(신평, 오수, 임실 1·2)가 분양 완료된 만큼, 오수2 또한 예정대로 준공돼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우기 등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관리"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 환경개선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목적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김 부지사는 "수요를 바탕으로 복합센터 내 공간배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혜택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비롯해 농공단지별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윤택유 역할을 자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산업 육성과 경제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군 공조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개장

8일부터 온라인 생생장터·우체국 쇼핑물 기획전 내달 2~3일·도청 광장에서 직거래장터 개장

전북도가 한가위를 맞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침체된 생생마을과 마을기업,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 채널을 확대해 실시한다.

참가 단체로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정보화마을협의회',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삼라장터직거래사업단',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8개 단체가 올해 상반기부터 원활한 한가위 큰장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 준비에 열을 올렸다.

온라인 채널은 전라북도 대표 농수축산물 종합 쇼핑몰 전북생생장터(fresh.com)와 우체국 쇼핑물(e-post)을 통한 기획전을 운영

하고, 오프라인 채널은 도청 서편광장에서 '소규모 직거래 장터'로 판매 장터를 개장한다.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는 2년여 만에 재개하며, 오는 9월 2일~9월 3일 2일간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제수용품으로 구성된 90여 가지 우수 상품을 준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2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일환으로 9월 2일 ~ 4일 3일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완제품(생활용품, 패션·악세서리 등) 중심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마을기업과 도민들이 이번 한가위 큰장터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특사경, 익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4건 적발

위장 전입·부양 가족수 부풀리기 등 편법으로 청약 당첨...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

익산시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4건이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한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부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

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 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에 당첨됐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업무협약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지난 3일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청소년들에 대한 평생교육 관심도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양 기관은 9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지도사들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교

육을 위해 전라북도를 전주, 군산, 익산, 새남부권, 동북부권, 동남부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교육 효과가 확대돼 될 수 있도록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교육 결과는 12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익산시·김제시·임실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6월 30일까지... 처벌·과태료·이행보증금 등 면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도내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이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자진신고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고자 받는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생략,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를 면제해주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 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2021년 10개 시군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1만3,000여공을 등록전환 했다.

도 홍인기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반려견 안전관리 홍보 캠페인 운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반려견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협력하여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산책로, 아파트 밀집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홍보내용은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안전관

리 등 팻iket 준수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견 주 이용지역과 휴가지·피서지에 현수막 게시,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현장 지도·안내 등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목줄 착용 등 팻iket를 꼭 준수하고, 함께할 수 없다면 반려동물을 펫 호텔 등에 맡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한 달간 반려인 주 이용지역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 분야에서 최초로 개척한 강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강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주내일목사장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지역의 3대 유명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범대 교수 · 송정목사 · 심리상담사
- 게시 "66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쁜 배운, 배. 배."
-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예방학회 회원,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